

## 한국 성인의 선호색에 대한 기초 연구: 성별 및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주리애<sup>1\*</sup>, 하정희<sup>2</sup>

<sup>1</sup>한양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sup>2</sup>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A Basic Study on Preferred Colors of Korean Adult; Focusing on gender and age differences

Juliet Jue<sup>1\*</sup>, Jung Hee Ha<sup>2</sup>

<sup>1</sup>Division of Art Therapy, Hanyang Cyber University

<sup>2</sup>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 성인을 대상으로 색채선호를 조사한 것이다. 색채 선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색채 선호를 확인하는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한 색채 선호에 대한 조사는 연구 대상자의 수와 연령대에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성인들의 색채 선호 특성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 성인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표집을 실시해서 색채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세부터 50세까지의 성인 남녀 869명이며, 색 자극으로 총 10개의 유채색과 무채색이 제시되었고 선호 순위를 매기도록 요청했다. 색채 선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되었는데 (1) 색깔별로 1순위로 선택한 사람들의 빈도, 그리고 (2) 각 색깔의 선호 순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색은 빨강(27.7%)이었지만, 평균 점수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색은 녹색(M=4.26)이었다. 성별에 따른 색채 선호 분석 결과, 남성은 빨강( $t=-3.81, p<.001$ ), 검정( $t=-3.04, p<.01$ ), 회색( $t=-2.89, p<.01$ )을 더 선호하고 여성은 노랑( $t=2.80, p<.01$ )과 보라( $t=4.46, p<.001$ )를 더 선호했다. 연령에 따른 색 선호 변화도 유의미했는데( $\chi^2=31.58, p<.001$ ), 나이가 들수록 녹색을 선호하고 빨강색과 노랑색을 덜 선호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한국 성인들의 색채 선호를 살펴볼 수 있었고 성별, 연령별 색채 선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the color preferences of Korean adults. Color preferences change with time, and there was a need to investigate color preferences after the coronavirus 2019 (COVID-19) pandemic. Earlier studies had limitations in terms of subject numbers and their specific age groups, and therefore we conducted the study on a large sample of adults. The subjects included 869 adults between the ages of 20 and 50. A total of 10 chromatic and achromatic colors were presented, and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nk their color preferences. These preferences were analyzed in two ways: (1) the frequency of people who chose the color as their first choice, and (2) the mean of the ranking. As p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color selected by most subjects as their first choice was red, but the color with the highest ranking in the mean score was green. Gender differences showed that men preferred red, black, and gray, while women preferred yellow and purple. In addition, as age increased, the subjects preferred green more and had a lower preference for red and yellow.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examine the color preferences of Korean adults at present and identify the differences in color preferences by gender and age.

**Keywords** : Chromatic Color, Achromatic Color, Preference Order, Gender Difference, Age Difference, Survey

본 논문은 2022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2R1/1A4053429)

\*Corresponding Author : Juliet Jue(Hanyang Cyber Univ.)

email: juliet@hycu.ac.kr

Received August 30, 2022

Revised November 1, 2022

Accepted November 4, 2022

Published November 30, 2022

## 1. 서론

색채 선호는 시각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색채는 호오(好惡)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색채 선호는 시대와 문화별로, 성별과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1-6]. 색채 선호는 상품의 선택과 구입, 주거환경의 구성, 영상 자료에 대한 평가 등 다방면의 생활 경험과 관련이 있어서 산업계와 학술분야 모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색채라는 개념은 시각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시각에 따른 심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색채와 관련된 심리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고, 색채심리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진 바 있다. 색채 관련 프로그램개발이나 그 효과성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 색채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호 색채 분석 연구는 제품의 선택과 관련된 색채 선호를 다방면으로 조사한 것이 주를 이룬다[7-10]. 이 경우에는 색채가 특정 사물과 관련된 것이므로 '특정 선호 색채'라고 부르고, 색채 자체만을 두고 선호하는 경향을 살펴볼 때에는 해당 색채를 '일반 선호 색채'라고 구분한다[11].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색채는 동일한 사람에게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으므로, 상호 보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일반 선호 색채에 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색채는 정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변화가 있을 때 선호 색채가 변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정서적으로 억압되는 분위기를 2년 넘게 겪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일반 성인의 색 선호를 조사함으로써 기존의 색 선호 결과와 비교해서 변화하고 달라진 양상을 추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색채 선호는 성별 차이와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주므로, 연령과 성은 색채 선호 연구에서 항상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일반 선호 색채에 대한 선행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과의 일반화와 적용에서 제한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연구 대상자의 인원이 비교적 소규모였고, 성인의 색채 선호를 살펴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대가 20대 초반으로 한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색채 선호를 조사했던 선행연구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실험을 실시할 경우 인원은 10명[12], 37명[13]에 불과했

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80명[14] 또는 160명[15]으로 200명 이하의 규모를 보였다. 300명[16], 306명[17] 또는 278명[18]의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얻은 연구들의 경우 참여자들이 모두 20대 대학생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었다. 또 다른 선행연구[19]는 200명의 대상자를 표집했지만, 연구에 참여한 남성은 총 40명에 불과하므로 해당 연구의 성별 색채 선호도가 충분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가 어려웠다. 노인 세대의 색채 선호를 살펴본 연구[20]에서는 50세~84세 338명의 참여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비록 선행연구에서 색채 선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고 제한적이거나, 해당 연령대가 20대에 국한되는 등 전체 성인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대상자 표집을 실시하고 특정 연령대에 제한하지 않고 폭넓은 연령대의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색채 선호는 시대가 바뀔 때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현시대의 색채 선호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 성인들 중 각 연령대와 남녀를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표본의 수를 확보하고 2022년 현재 한국 성인들의 색채 선호가 어떠한지 조사하여 색 선호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 2. 본론

### 2.1 연구 방법

#### 2.1.1 조사 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우리나라 성인 남녀 869명으로 이들의 나이 범위는 20세부터 최대 50세까지 분포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32.0세(표준편차 7.7세)로 나타났고, 20대 359명, 30대 365명, 40대 이상 145명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40.6%), 여성(56.7%), 그리고 기타 또는 무응답(2.7%)로 나타났다.

#### 2.1.2 선호 색채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색자극은 Zhang 등[1]의 연구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빨강, 주황, 노랑, 녹색, 밝은 파랑, 어두운 파랑, 보라, 그리고 흰색, 검정, 회색 등 10개의

기본색을 사용했다. 이는 무지개색 구성과 동일하므로 비전문가인 일반인을 상대로 가장 친숙한 색 구성이라 할 수 있다[19]. 총 10개의 색상을 색 조각과 단어로 제시하고 이 색상들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1위부터 10위까지 순서대로 매기도록 했다. 만약 참가자들이 원하는 정확한 색이 없을 때에는 가장 근사한 색상을 선택하도록 했다.

### 2.1.3 설문조사 방법

본 연구는 인터넷 기반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색채 선호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다는 안내문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했으며, 홍보글에 소개된 사이트 주소를 누르면 설문 사이트로 연결되었다.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뒤 조사에 응답하였다. 성별과 나이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 그 다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색채를 선택해서 순위를 매기도록 요청 받았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면에는 10개 색상의 색 조각과 색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자신이 선호하는 색상별로 순위를 클릭하도록 했다. 본 연구는 실시 전에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HYCU-IRB-2022-005).



Fig. 1. Color stimuli in the survey

### 2.1.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색채 선호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하나는 각각의 색채를 가장 좋아한다고 응답한 1순위가 각각의 색채별로 몇 명이나 있는지 빈도를 구하였다. 다른 하나는 색채별 선호 순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였는데, 평균값이 낮을수록 선호 순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색채별 선호 순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선호 순위 평균값을 사용해서 집단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대별 색채 선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1순위별 빈도를 사용해서 빈도분석과  $\chi^2$ -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1. Color preference distribution of the whole group

Rank	1st choice		average of rank score		
	color	N	color	Mean	S.D.
1	red	241	green	4.26	2.38
2	yellow	117	red	4.45	3.08
3	green	103	yellow	4.48	2.62
4	light blue	94	light blue	4.53	2.38
5	dark blue	68	orange	5.11	2.82
6	white	66	dark blue	5.26	2.46
7	purple	53	white	5.85	2.57
8	orange	51	purple	6.07	2.48
9	black	49	black	7.04	2.93
10	grey	27	grey	7.17	2.57

## 2.2 연구 결과

### 2.2.1 참여자 전체의 색채 선호

참여자 전체의 색채별 선호 1위의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빨강이었다. 빨강은 총 241명 (27.7%)로부터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선택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노랑을 1순위로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고(13.5%), 녹색(11.9%), 밝은 파랑(10.8%) 순서였다. 회색을 1순위로 선택한 사람들은 27명(3.1%)에 불과해서, 회색은 사람들로부터 선호를 받지 못하는 색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분석 방법인 선호 순위의 평균을 구해서 색채 선호를 확인한 결과, 녹색의 순위 평균값이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평균이 낮을수록 해당 색채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녹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르게 선호하는 색이라는 의미가 된다. 앞서 사용한 첫 번째 분석 방법의 경우 1위로 선택한 사람들의 빈도를 구했는데, 그 결과에서는 녹색이 세 번째로 선호되는 색상이었지만, 순위 점수의 평균을 사용한 두 번째 분석 방법에서는 녹색이 가장 선호하는 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은 선호 순위를 평균 냈을 때 표준편차가 가장 컸던 색이다(*S.D.*=3.08). 즉, 빨강에 대해서는 높은 순위를 부여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낮은 순위를 부여한 사람들도 다른 색상에 비해서 많았다는 의미가 된다. 그에 비해, 녹색은 밝은 파랑과 더불어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색이었다. 즉, 녹색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뒤섞여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노랑과 밝은 파랑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았을 때 상위권을 차지했다. 검정과 회색은 1순위로 선택한 인원도 적었지만, 전체 순위 평균점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모든 색깔은 최소 1점, 최대 10점을 받았다. 즉, 각각의 색에 대해 선호 1순위로 선택한 사람과 10순위를 매긴 사람들이 모두 있었다는 뜻이다.

### 2.2.2 성별에 따른 색채 선호

성별에 따른 색채 선호를 분석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으로 집단을 나누었다. 기타 응답은 비율이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의 두 번째 분석 방법인 색채의 선호 순위의 평균을 사용해서 남녀 집단 간 *t*-검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빨강( $t=-3.81, p<.001$ )과 노랑( $t=2.80, p<.01$ ), 보라( $t=4.46, p<.001$ ), 검정( $t=-3.04, p<.01$ ), 회색( $t=-2.89, p<.01$ )에서 남녀 간 색채 선호의 차이가 있었다. 남성에게서 선호도 순위가 더 높게 나타난 색깔은 빨강과 검정, 회색이었고, 여성의 선호도 순위가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 색은 노랑과 보라였다.

Table 2. Difference in rank average by color according to gender

Color	Male		Female		<i>t</i>
	Mean	S.D.	Mean	S.D.	
red	3.96	3.04	4.76	3.06	-3.81***
orange	5.05	2.78	5.14	2.86	-0.47
yellow	4.77	2.55	4.27	2.66	2.80**
green	4.16	2.37	4.32	2.38	-1.00
light blue	4.60	2.44	4.50	2.32	0.56
dark blue	5.47	2.54	5.14	2.37	1.96
purple	6.52	2.33	5.76	2.54	4.46***
white	5.91	2.59	5.83	2.55	0.42
black	6.72	3.09	7.32	2.75	-3.04**
grey	6.87	2.67	7.41	2.47	-2.89**

Note. \*\*  $p < .01$ , \*\*\*  $p < .001$ .

### 2.2.3 연령대에 따른 색채 선호

연령대별 집단을 나누고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선택한 색깔별 인원의 빈도분포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지  $\chi^2$ -test를 실시했을 때, 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hi^2(18, N=869) = 47.84, p<.001$ . 상위 선호 색 4개는 빨강, 노

랑, 밝은 파랑, 녹색으로 20대와 30대, 40대에서 모두 동일했지만, 이 색깔들의 선호 순위와 비율에 따른 연령대별 차이는 유의미했다.  $\chi^2(6, N= 555) = 31.58, p<.001$ . 이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20대와 30대 간 비교( $\chi^2(3, N=459) = 10.39, p<.05$ ), 30대와 40대 간 비교( $\chi^2(3, N=334) = 10.31, p<.05$ ), 그리고 20대와 40대 간 비교( $\chi^2(3, N=317) = 28.24, p<.001$ ) 모두에서 상위 4개 색깔의 선호도 분포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색은 녹색과 빨강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녹색의 선호가 높아졌고 빨강의 선호는 낮아졌다. 노랑은 20대에서보다 40대에서 선호 순위가 낮아졌다.

Table 3. Color preference distribution by age group

Rank	20s		30s		40s	
	color	%	color	%	color	%
1	red	33.1	red	25.6	green	17.9
2	yellow	10.6	yellow	14.9	L. blue	17.2
3	L. blue	8.4	green	12.8	red	15.9
4	green	7.9	L. blue	10.1	yellow	15.2
5	white	6.8	D. blue	9.9	D. blue	10.3
6	D. blue	6.2	white	8.3	purple	6.9
7	orange	5.7	purple	7.5	orange	6.2
8	black	5.1	black	6.4	white	5.5
9	grey	3.3	orange	5.6	black	4.1
10	purple	2.7	grey	2.7	grey	3.4

Note. L. blue = Light blue; D. blue = Dark blue.

## 3. 논의

본 연구는 일반인의 색채 선호 경향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전체적인 선호도에서 높은 비율의 선호를 보인 색은 빨강과 노랑, 밝은 파랑과 녹색이었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 빨강 계열과 노랑 계열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는 선행연구는 본 연구에서 일반인의 빨강과 노랑에 대한 높은 선호가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2].

빨강은 문화권에 따라 선호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색채이기도 하다[3,4]. 영국인과 중국인의 색채 선호를 비교했을 때 빨강에 대한 선호는 중국인에게서 훨씬 더 높았고[3], 영국인과 아랍인을 비교했을 때에도 파랑 계열을 좋아하는 영국인에 비해 아랍인들은 빨강을 더 선호했다[4]. 또한, 1,290명의 중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색채 선호

연구에서도 빨강에 대한 선호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

빨강과 노랑은 대표적인 장·파장 색채이고, 녹색과 청색은 단·파장 색채이다. Adams[6]는 아동과 성인의 색채 선호를 비교하면서 아동은 빨강이나 노랑 같은 장파장을 선호하고, 그에 비해 성인은 단파장을 더 선호한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연령별 비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녹색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빨강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노랑에 대한 선호도 40대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 색채 선호 경향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녹색에 대한 선호가 관찰된 것을 주목할 만하다. 가장 좋아하는 색을 묻는 물음에서 녹색은 1순위가 되지 못했지만, 1위부터 10위까지의 색 선호 순위를 점수로 계산해서 각 색깔별로 평균을 구했을 때, 녹색은 선호 1순위로 나타났다. 즉, 1순위를 많이 받았던 빨강은 낮은 순위를 준 경우도 많았으므로 평균 순위로는 조금 낮아진 반면, 녹색은 낮은 순위를 받은 정도가 적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녹색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거나 특별하게 좋아하는 색채를 떠올릴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색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색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빨강에 비해 덜 두드러진 색이면서 이차색으로서의 녹색의 특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인들의 색채 선호에서 주황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을 상대로 색채 선호를 조사했을 때, 공통적으로 주황이 가장 낮은 선호를 보였던 결과와 일치한다[2].

무채색은 유채색에 비해서 선호가 낮게 나타났다. 무채색 중에서는 흰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고, 회색에 대한 선호는 가장 낮았다. 무채색보다 유채색을 더 선호하는 것은 유아에게서도 관찰되는 경향이다[6]. 한국과 일본의 성인을 대상으로 선호 색채를 살펴본 연구에서 두 나라 모두 싫어하는 색으로 회색을 지목했고, 그에 비해 흰색에 대한 선호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보고되었다[5].

####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색채 선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대의 성인 표본만을 조사했던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20세~50세의 한국의 성인남녀

869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라는 점에서 보다 신뢰할 만한 결과이다. 기존 선행연구와 동일했던 부분은 무채색보다는 유채색의 선호가 높았고, 유채색 중에서는 빨강, 노랑, 녹색, 밝은 파랑의 선호가 높았던 점, 그리고 색 선호에서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 등이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차이를 보인 점은, 색 선호 순위를 점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녹색이 선호 1순위로 나타난 것인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과 복잡한 현대사회에 지친 사람들이 선택한 선호색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선호 색채 자료는 색채마케팅과 색채 환경 구축, 컬러 테라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색채 선호와 인간 심리와의 관련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Y. Zhang, P. Liu, B. Han, Y. Xiang, L. Li, Hue, chroma, and lightness preference in Chinese adults: Age and gender differences,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Vol.44, No.6, pp.967-980, 2019. DOI: <https://doi.org/10.1002/col.22426>
- [2] J. M. Cha, K. Noguchi, Color preference compared between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lor Studies*, Vol.20, No.1, pp.1-10, 2006.
- [3] A. C. Hurbert, Y. Ling, Biological component of sex differences in color preference, *Current Biology*, Vol.17, pp.623-625, 2007.
- [4] A. S. Al-Rasheed, An experimental study of gender and cultural differences in hue preference, *Frontiers in Psychology*, Vol.6, No.30, 2015. DOI: <https://doi.org/10.3389/fpsyg.2015.00030>
- [5] M. Saito, Comparative studies on color preference in Japan and other Asian region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preference for white,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Vol.21, No.1, pp.35-49, 1996. DOI: [https://doi.org/10.1002/\(SICI\)1520-6378\(199602\)21:1<35::AID-COL4>3.0.CO;2-6](https://doi.org/10.1002/(SICI)1520-6378(199602)21:1<35::AID-COL4>3.0.CO;2-6)
- [6] R. J. Adams, An evaluation of color preference in early infanc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Vol.10, No.2, pp.143-150, 1987. DOI: [https://doi.org/10.1016/0163-6383\(87\)90029-4](https://doi.org/10.1016/0163-6383(87)90029-4)
- [7] M. H. Lee, M. Y. Kim, The differences in color preference and possession of apparel color preference by influential factors: Focusing on fashion involvement, age, body size and body-cathex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27, No.2, pp.188-199, 2003.
- [8] Q. Y. Lei, Y. S. Kim, A study on the purchasing

behavior of colored products by general preference: Focused on Shanghai Women's University students, *Design Research*, Vol.5, No.3, pp.211-222, 2020.  
DOI: <https://doi.org/10.46248/kidrs.2020.3.211>

- [9] J. Y. Lee, D. Kim, J. Eune, A study on color symbol analysis with Korean characters: Focusing on preferred and non-preferred charact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lor Studies*, Vol.31, No.4, pp.25-34, 2017.  
DOI: <https://doi.org/10.17289/jkscs.31.4.201711.25>
- [10] D. Y. Im, A study on fashion product purchasing behavior according to color preference, *Journal of Product Research*, Vol.37, No.6, pp.153-160, 2019.  
DOI: <https://dx.doi.org/10.36345/kacst.2019.37.6.017>
- [11] N. Je, Y. Yoo, G. Choi, Analysis of the study pattern on preferred color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Vol.26, No.2, pp.27-40, 2012.
- [12] D. H. Kim, S. G. Hong, J. Y. Jung, M. S. Cho, A study on the observer preferable colors of natural objects on PDP,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Vol.16, No.2/3, pp.69-75, 2002.
- [13] J. W. Choi, Y. K. Park, G. S. Choi, The evaluation of familiarity and aesthetics according to the associated color of pictogram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Vol.36, No.2, pp.42-50, 2022.  
DOI: <https://dx.doi.org/10.17289/jkscs.36.2.202205.42>
- [14] E. J. Lee, Y. J. Lee, Exploring self from personality and color preference,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Vol.35, No.4, pp.28-40, 2021.  
DOI: <http://dx.doi.org/10.17289/jkscs.35.4.202111.28>
- [15] H. Lee, *Effects of color on purchase intention in print advertising: Roles of color preference and fit with the product*,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Seoul, p.40, 2011.
- [16] Y. Park, S. Song, The research on preference colors and color image of the 20'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Vol.28, No.3, pp.69-80, 2014.
- [17] J. M. Cha, Y. J. Ju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preference and psychology: Focusing on yellow preference,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25, No.4, pp.507-523, 2018.
- [18] N. Je, Y. E. Chung, G. S. Choi, A comparative study on color preference influenced by empirical factors of learning,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Vol.25, No.2, pp.39-47, 2011.
- [19] Y. Kim, An analysis of color preference according to human na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 Beauty*, Vol.4, No.1, pp.12-18, 2006.
- [20] J. H. Suh, Characteristic of new silver generation's color preference, *Korea Design Trend*, Vol.31, pp.96-106, 2011.

주 리 애(Juliet Jue)

[정회원]



- 1999년 8월 : The George Washington Univ. Art Therapy Department (미술치료 석사)
- 2004년 8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 학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 2009년 8월 ~ 현재 : 한양사이버 대학교 미술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미술치료, 색채, 지각심리학, 임상심리학

하 정 희(Jung Hee Ha)

[정회원]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9년 8월 ~ 2016년 8월 : 한양 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 2016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완벽주의, 상실, 다문화상담, 색채